July 30, 2023

후러싱 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2023년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1, 2부 예배 SERVICE

인도: 1부 이상재 목사(Rev. Sangjae Lee)
2부 박영관 목사(Rev. Young Gwan Park)

● 입례찬송 27장
Opening Hymn 빛나고 높은 보좌와
Majestic Sweetness Sits Enthroned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438장
Hymn 내 영혼이 은총 입어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3부 예배 SERVICES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4, 5부 예배 SERVICES

4부 영어예배

설교 Pastor John Yang
Sermon

1 Timothy 4:1-5
"True and False Gospel"

5부 예배

설교 신기성 전도사
Sermon Pastor Kiseong Shin

사도행전 3:1-10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대표기도 1부 윤관호 장로
Prayer 2부 강효영 권사
3부 정상아 집사

찬양 "나를 인도 하소서 " by Frank M. Davis 1부 찬양대
Anthem "감사쏭" by 백하슬기 2, 3 부 찬양대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마 13:31-33, 44-50
(창29:15-28; 시105:-11, 45b; 롬8:26-39)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천국은 어떤 곳인가?" 김정호 목사
What is Heaven Like? Rev. Chongho Kim
설교
Sermon

● 결단 찬송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Hymn of Response Come, We That Love the Lord

● 축도
Benediction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교회소식 ANNOUNCEMENT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생방송 예배: **https://www.fumc.net/web/live**

02. 인선위원회

일시: 7월 30일(주일) 1:00 PM
장소: 담임목사실

03. 8월 속장 부속장 모임 안내

정기 속장 부속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속장 부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일시: 8월 6일(주일) 오후 12:40분
* 장소: 교육관 3층 예배실

04. 8월 점심식사 친교 휴식

8월 한달 동안 3부 예배 후 점심식사 친교를 쉽니다.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주방봉사가 어렵기 때문에 8월은 쉬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5. 월드비전 합창단 기념 음악회

한국전쟁 73주년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음악회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월드비전합창단의 공연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드비전합창단은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특별찬양을 합니다. * 일시: 8월 5일(토) 오후5시 * 장소: 본교회

06.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8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과 예배실 복도에 위치한 큐티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07. 3부예배 찬양팀 단원 모집

3부예배 찬양팀은 주일 3부예배를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싱어부분과 악기부분에서 찬양단으로 함께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찾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문의: 목회실 또는 김진수 권사

08. 여름성경학교(VBS)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성경학교(VBS)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학교 때 교사 및 Staff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령제한 없습니다.)
일시: 8월 25일(금)~27일(주일) 장소: 본 교회
문의: 이상재 목사 (구글 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09. 예배 예절 캠페인

예배 시간 전에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예배 예절은 주변 성도를 위한 배려입니다.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수요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삶의 지표가 되는 나침반(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

나침반과 같은 삶에의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구절을 중심으로 한 주씩 말씀을 나눕니다. 혼돈의 세상, 어지러워 갈 길 못 찾는 이들에게 바른 지침이 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8월 2일 : 출애굽 25:1-9 "지성소로 향한 여행"
* 설교: 김정호 담임목사
* 수요일 저녁: 8시 / 생방송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기도회 안내> Early Morning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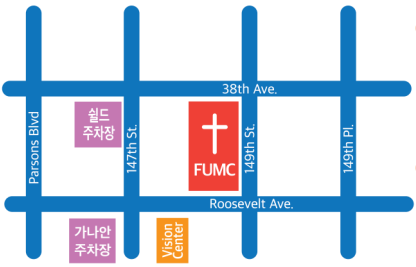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사용 / 새벽 6시 (월~토)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mc.net/web/live

<7월 설교 안내>

8/6	예수 축복 천국 기적	마 14:13-21 (창32:22-31; 시17:1-7,15; 롬9:1-5)
8/13	물 위 걷는 기적	마 14:22-33 (창37:1-4,12-28; 시105:1-6,16-22,45b)
8/20	소원 이루는 기적	마 15:21-28 (창45:1-15; 시113; 롬11:1-2a, 29-32)
8/27		전재덕 목사(쿠바 선교사)

< 주일예배 대표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7/30	윤관호 장로	강효영 권사	정상아 집사
8/6	연성흠 권사	전기홍 권사	양학모 집사
8/13	조희일 장로	이상춘 장로	최형무 장로
헌금위원	연영숙 권사	유명희 집사	김수화 집사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쉴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 와 147가 사이

모임안내 MEETINGS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 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섬김의 사역자 학교

주 일 1pm / 1:30pm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ewyork.net)
-9 am / 7 pm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정호

지난주 쿠바를 다녀오면서 공산주의 지상천국을 구호로 외치지만 국민의 현실 생활의 지옥 같은 어려움의 모순을 문제 삼는 내용으로 제가 목회수상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쿠바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쿠바 생활이 너무 불편한데 그의 아이들은 좋아한다는 내용입니다. 방학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선생님이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는 아이와 함께 우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불편한 쿠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되었다는 '쿠바, 혁명보다 뜨겁고 천국보다 낯선'(정승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들 그리고 함부로 하는 학부형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그 글을 쓴 분이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체 게바라가 말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근심하면 나는 울고, 내가 기뻐하면 친구는 춤춥니다."(스탠포드 대학 마틴 카노이 교수의 쿠바 교육의 특징)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내세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여기 이 삶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따듯한 사랑의 나눔,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죽을 죄를 진 인간들에게 새롭게 허락되는 은혜의 오늘과 내일 ...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천국 소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랑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현실이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최고 부강한 나라 미국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공산주의 최고 어려운 나라 쿠바에도 천국과 지옥이 공존합니다. 천국은 우는 아이의 아픔을 공유할 줄 아는 선생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옥이니 남들도 그러기를 바래서 그렇습니다. 지옥을 결단하고 지옥을 사는 못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사랑 나눔으로 천국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1979년 보스턴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고 첫 학기를 못 마치고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연세 많으신 구약교수님이 보자고 하시더니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십니다.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드디어 나에게 학교 그만 다니라는 통보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몸이 크고 수염이 긴 Dr. Harrell Beck 교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내 양 어깨를 꽉 붙잡고 흔들면서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퇴학을 두려워하던 제가 졸업생 대표로 마틴 루터 킹목사님도 졸업하셨던 그 학교 채플에서 졸업 예배 때 헤렐 백 교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집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소망의 말 한마디, 재정적 도움, 기도, 설렁탕 한 그릇... 모두 훗날 큰 나무를 이루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어느 분이 애틀란타에 사기꾼들 많고 못된 인간들 많다고 비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뉴욕에도 많고 서울에도 부산에도 많습니다. 다만 애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것은 거기에는 인생 망하고 실패하고 온 사람들도 많고 은퇴하고 온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은혜를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웠습니다. 텃세 부리는 인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한 지 이제 8년을 넘어갑니다. 뉴욕의 큰 장점은 열심입니다. 영적 갈망이 큽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교인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좀 살아보니 개선할 점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거칠고 마음이 각박한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천국을 사니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큰 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야박하지 말고 넉넉해야 합니다. 많이 참아야 합니다. 많이 도와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 잘 안 해도 그래도 겨자씨 사랑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후러싱 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939-8599 :: Fax. 718-321-8805
www. fumc.net